

전대현(서울애니메이션센터 영상편집실 과장)

여러분,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놀러 오세요



시민들을 찾아가는 행사로 길거리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하나 둘 공원으로 모이더니 어느 덧 공원에 사람들이 가득입니다.
 시민들이 좋은 시간 마련해 줘서 고맙다고 음료수도 건네주시고,
 행사가 끝나면 뒷정리도 함께 도와주고 가십니다. 마음이 너무나 훈훈합니다.
 애니메이션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애니메이션 작업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본인 소개와 업무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1999년 5월에 개관을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 편집실과 그래픽실이 있었는데, 편집실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는 그래픽실이 없어지고 녹음실이 생겼어요. 크게는 이 두 곳을 관리하는데, 아마도 근무한지 제일 오래됐다고 시키는 것 같아요(^). 주요 업무는 편집실에서 후반작업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소개

애니메이션센터의 첫 출발은 만화·애니메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센터인데, 지금은 게임·캐릭터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영역이 확장되면서 콘텐츠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센터는 대민시설과 일반시설로 나뉘고, 일반사업팀이 별도로 있어요. 대민시설로는 극장, 영상정보실, 도서정보실, 전시실, 체험전시실이 있고요. 전문가를 위한 공간으로 편집실, 녹음실, 캐릭터원형제작실이 있어요. 센터가 크지는 않는데 사업은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해 다양한 강연도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영역으로 해외로의 수출이나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가장 두드러지는 사업은 제작지원이고, 그 외에도 창작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많은 지원으로 애니메이션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곳이에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찾는 이유

애니메이션은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후반작업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이 말은 애니메이션이 보통 한 회사에서 1년에 한 작품(26부작) 정도 밖에 제작을 못하는데, 후반작업을 하기위해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별도로 두기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 금액의 장비나 인원이면, 애니메이터를 더 고용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후반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관 한지 15년이 넘으면서 그 기간만큼 다양한 종류의 많은 작업을 하면서 노하우도 쌓이면서 더욱 신뢰하는 것 같아요.

작업했던 작품들

15년을 해오다보니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작품들의 후반작업을 했는데, 어떤 작품을 이야기해야 할 지...(^^) 독자여러분에게 친숙한 작품으로는 '뽀롱뽀롱 뽀로로'가 있어요. 전 편을 작업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을 하면서 진행되는 작업은 저희 센터를 거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차라리 안 했던 작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것들은 다 접해본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센터다보니 작업들이 집중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겨울연가'를 작업했는데, 일본 NHK에서 방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콘텐츠들이 수출돼서 외국에서 방영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작업했던 작품들 모두 기억하지는 못해도 우수한 작품들이 무수히 제작돼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사업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갖는 특징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앵글이 자유롭다는 것 같은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연기해야하므로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은데, 애니메이션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무한한 상상력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화면으로 끝없이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매력이에요. 그리고, 작품의 성향에 따라 가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업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게 되는데, 캐릭터들이 밝게 웃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아마도 시청 대상이 아이들이 많아서겠죠. 그래서 작업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애니메이션이 갖는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편집실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작품들을 작업해야하므로 마치 전시장처럼 거의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파인컷 프로'고요. '아비드', '스모크' 등이 있고, 올해는 '파블로'를 구입할 예정이에요. 외부에서 작업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어요. 방식에 따라 색감의 차이도 있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춰줘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장비들을 호환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도 요즘은 편해진 게 호환의 벽이 거의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매킨토시와 PC와의 호환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어떤 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그 방식으로만 편집해서 끝냈어야 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들끼리 호환이 잘 이뤄지면서 일하기가 한참 수월해졌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전망

끊임없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열과 성을 다해 도전하는 분들이 있기에 밝다고 보고 있어요. 제작하는 실무자들을 만나 일을 하다 보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는 영화에 사업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사업이란 말을 붙이기에는 콘텐츠의 자체 소모시장이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영화도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어떻겠어요. 일본처럼 만화책을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문화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면 모를까 힘든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무한한 상상력으로 애니메이션에 계속 도전하는 제작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지속적인 도전과 노력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죠. 이들의 열정이 있는 만큼 애니메이션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뤄져 애니메이션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바람

애니메이션센터가 2012년에 상암동으로 이전할 예정이에요. 이전하기 전까지 지금처럼 다양한 사업들 잘 꾸려갔으면 좋겠고요. 이곳이 남산자락에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야외와 전시장에 구경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에요. 많이들 방문하셔서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상암동으로 이전하면 그곳에서는 그곳에서의 꿈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해요. 새로운 시설과 장비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해요.